

芭蕉의 無常觀 研究

朴馥遠*
ljapan815@naver.com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3.2 循環과 無常 |
| 2. 芭蕉의 無常觀 形成 過程 | 3.3 人間營爲와 無常 |
| 3. 芭蕉의 無常 | 4. 나오며 |
| 3.1 造化隨順과 無常 | |

主題語: 芭蕉(Basho), 無常觀(a view of life as something transient and empty), 無常迅速(Death strikes suddenly and mercilessly), 會者定離(The first breath is the beginning of death), 自然觀(View of Nature)

1. 들어가며

天地 自然의 現象으로부터 人間事 全般에 걸쳐 常住하는 것은 없으며 모두 流轉變化한다는 것이 無常의 定意이다. 따라서 季節은 循環하기 마련이고, 生者必滅, 會者定離, 榮枯盛衰가 理致라는 것이 無常의 一般的 意味이다. 이러한 變化의 要因은 外部의 作用이나 條件에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事物의 自性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內在)이라고 보고 있다. 이것을 諸行無常이라고 하며, 그 理致를 깨달아 사람과 物質에 대한 執着에서 解脫하면 마음의 安樂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無常觀이다.

芭蕉는 一所不住의 生活을 實踐하였고, 그의 文藝에서도 事物의 流轉變化와 無所有 思想을 糾明할 수 있다. 즉, 自身の 文藝와 人生을 <西行의和歌における、宗祇の連歌における、雪舟の絵における、利休の茶における、その貫道するものは一つなり。>에서처럼 西行, 宗祇, 雪舟, 利休 등의 藝道와 같은 精神的 系列로 보고 있고, 諸行無常, 萬物流轉, 飛花落葉의 法理와 같은 造化隨順 思想을 實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芭蕉는 自然이나 時間 등, 모든 事物을 無常迅速의 幻影으로 認識하고, 無常을 謙虛하게 受容하여, 人間과 山川草木의 眞相을 諦觀하여 現世的인 我執, 俗心, 虛妄, 動搖를 超越한 世界에서 文藝의 美와 事物의 眞理를 同時에

* 韓國國際大學校 觀光大學 觀光日語學科 教授

追求했던 것이다.

한편 韓國 研究者에 의한 芭蕉의 無常觀에 관한 研究는 아직 始作 段階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學位 論文은 梁順喜의 「松尾芭蕉의 無常觀研究」¹⁾뿐이다. 이 論文에서는 먼저 日本古典文學에 있어서의 無常觀을 『萬葉集』·『方丈記』·『平家物語』를 통해 指摘하고, 芭蕉의 無常觀에서는 無常觀의 動機, 「自然」·「時」·「人生」에 관한 芭蕉의 無常觀에 대해 指摘하고 있다. 또한 學術誌 및 著書로 發表된 芭蕉의 無常觀에 관한 研究는 아직 없다.

이렇게 芭蕉의 無常觀에 관한 研究는 아직 始作 段階에 머물러 있다. 이에 本 研究者는 芭蕉의 無常觀 研究에 있어 出典論을 根據하여, 먼저 芭蕉의 無常觀 形成 過程에 관해 糾明하고, 芭蕉의 無常觀을 造化隨順과 無常, 循環과 無常, 人間營爲와 無常으로 大別하여 考察하고자 한다. 여기서 주 텍스트로 삼은 것은 『松尾芭蕉1 (俳句編)』²⁾, 『松尾芭蕉2 (紀行日記俳文連句編)』³⁾이며, 本文 引用은 이 冊들을 原則으로 한다.

2. 芭蕉의 無常觀 形成 過程

芭蕉가 最初로 無常感을 느낀 것은 主君 요시타다(良忠)의 죽음 때문일 것이다. 主君 良忠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23歲인 芭蕉는 仕官懸命의 꿈을 拋棄하게 된다. 이에 대해 當時 自身의 心境을 『幻住庵記』에서 다음과 같이 吐露하고 있다.

ひたぶるに閑寂を好み、山野に跡をかくさむとにはあらず。やや病身人に倦で、世をいとひし人に似たり。つらつら年月の移り来し拙き身の科を思ふに、ある時は仕官懸命の地をうらやみ⁴⁾

위의 俳文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芭蕉 自身이 閑寂함을 좋아해서 山野에 숨어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心身이 고달프고 남들과의 交際가 번거로워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回想하고 있다. 또한 自身이 살아온 過去를 되돌아보면 自身의 過誤가 많고 主君에게 奉仕하여 祿을 먹는 身分을 부러워했지만, 主君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自身의 꿈이 挫折된 瞬間 世上에 대해

1) 梁順喜(1985.8) 「松尾芭蕉의 無常觀研究」中央大學校 教育大學院

2) 井本農一堀切實(1999) 『松尾芭蕉1』小學館

3) 井本農一久富哲雄村松友次堀切實(1999) 『松尾芭蕉集2』小學館

4) 前掲書『松尾芭蕉集2』, p.303

無常을 느끼면서 懷疑를 품고, 隱居하게 되었다고 告白하고 있다. 芭蕉는 草庵에 들어가 隱居하였고, 不頂和尚에게 禪을 배우면서 無常感을 深化시킨다. 또한 俗世에 있으면서 어떻게 해서 高悟歸俗의 境地에 달할 수 있을가를 參禪하는 사이에 깨우치려고 努力하는 過程中 無常觀을 基底로 하는 人間 存在의 根源을 깊이 思索하였다고 할 수 있다.

1682年 겨울, 隱居하던 草庵이 큰 火災로 燒失되면서 芭蕉는 人生無常의 덧없음을 切感하게 된다. 當時 芭蕉의 心境에 대해, 弟子인 기카쿠(其角)는 『芭蕉翁終焉記』에서 다음과 같이 描寫하고 있다.

爰に猶如火宅の變を悟り、無所住の心を發して、其次の年、夏の半に甲斐が根にくらして、富士の雪のみつれなければと、それより三更月下人無我といひけん昔の跡に立歸りおはしければ。5)

위의 地文을 통해 알 수 있듯이 隱居하고 있던 草庵이 갑자기 火魔에 휩싸였고, 바닷물을 적시며 풀 더미를 뒤집어쓰고 煙氣 속에서 간신히 살아남았을 當時의 芭蕉 心情을 헤아려볼 수 있다. 生命의 덧없음을 理解하고 猶如火宅의 變을 깨달아 無所住의 마음이 생겨난 것이다. 즉, 有形物인 住居地의 消滅로 인하여, 有形物의 限界를 認識하고, 나아가 居住나 집 등의 有形物에 대한 執着에서 超克하려는 無所住의 意志를 엿볼 수 있다.

草庵의 火災事件으로 困境에 빠진 芭蕉는 1683年 6月 20日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訃音을 전해 듣는다. 하지만 火災事件으로 住居가 不安定하고, 形便이 어려워 葬禮式에 參席할 수 없는 處地가 된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子息으로서 어머니의 葬禮式에도 參席할 수 없는 煩惱로 인해 無常感을 강하게 느낀다. 結局 芭蕉는 다음해인 1684年 8月 中旬 어머니의 죽음을 哀悼하기 위해 歸郷하게 되고, 이때의 感懷를 적은 記錄物이 『野ざらし紀行』이다.

芭蕉는 『野ざらし紀行』을 통해 富士川 近處에서 울고 있는 버려진 아이(捨子)를 만나고, 故郷에서는 죽은 어머니의 흰 머리카락을 마주하고, 도키와(常盤)의 무덤을 보면서, 人間世上의 無常함을 한층 강하게 느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野ざらし紀行』以後, 「無常」이나 「無常迅速」에 대해 자주 言及하고 있는 事實을 통해서도 糾明할 수 있다.

芭蕉는 1686년 10月末 『笈の小文』漂泊에 앞서서 無常에 대한 心境을 다음과 같이 吐露하고 있다.

身は風葉の行く末なき心地して6)

5) 勝山晋風(1921) 『其角全集』聚英閣, p.358

위의 俳文에서 芭蕉는 바람에 흩어져 내리는 나뭇잎처럼 갈 곳을 정하지 못하면서 人間世上의 無常함을 깨닫고, 自身도 萬物과 함께 流轉하는 心境을 吐露하고 있다. 芭蕉는 『笈の小文』 <序文>을 통해서 無常에 대한 心境을 다음과 같이 吐露하고 있다.

西行の和歌における、宗祇の連歌における、雪舟の絵における、利休の茶における、その貫道するものは一つなり。⁷⁾

위의 俳文에서 芭蕉는 文藝家の 時代的 召命인 藝術至上主義 狀況에서 最高の 文藝 境地에 到達하는 條件을 提示하고 있다. 芭蕉는 이것을 江戸 前期의 文藝觀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 俳人의 召命으로 認識한 것이다. 自己의 風雅, 즉 俳句와 人生을 和歌의 西行, 連歌의 宗祇, 그림의 雪舟, 茶道의 利休 등의 藝道와 一貫된 精神的 系列로 把握하고 있다. 또한 造化隨順 思想은 諸行無常, 萬物流轉, 飛花落葉의 理法을 따른다는 점을 勘案하면, 芭蕉의 人生觀과 文藝理論에 큰 影響을 주었다는 事實을 알 수 있다.

芭蕉의 俳句 理論書라고 할 수 있는 『三冊子』에는 다음과 같이 記述되어 있다.

「命も又かくのごとし」と也、無常の觀、猶亡師の心也。⁸⁾

위의 俳文에서 芭蕉는 觀念에는 이미 無常의 觀念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代辯해 주는 句라 할 수 있다. 또한 『更科紀行』에서는 善光寺를 향해 가면서 다음과 같이 吐露하고 있다.

歩行より行く者さへ、目くるめき魂しばみて、足さだまらざりけるに、かの連れたる奴僕
いとも恐るるけしき見えず、馬の上にてただねぶりにねぶりにて、落ちぬべきことあまたた
びなりけるを、あとより見上げて、あやふきこと限りなし。佛の御心に衆生のうき世を見
たまふもかかることにやと、無常迅速のいそがはしさも、我身にかへり見られて、阿波の
鳴戸は波風もなかりけり。⁹⁾

위의 俳文에서 芭蕉는 줄음으로 인해 當場이라도 말에서 떨어질 것 같은 同行 男子를 조마조마하게 바라보았지만, 오히려 同行 男子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흔들리는 말 위에서 여유

6) 前掲書『松尾芭蕉2』, p.46

7) 上掲書, p.29

8) 木藤才藏井本農一 校注(1983) 『連歌論集 俳論集』岩波書店, p.438

9) 前掲書『松尾芭蕉2』, p.68

롭게 즐기까지 하여 몇 번이나 떨어질 것 같은 危機感을 맛본다. 만약 이 光景을 부처님이 보시면 어리석은 人間들이 生活하는 現世와 같다고 할 것이다. 芭蕉는 人間들이 꿈틀거리고 있는 이 뜬구름 같은 世上에서 人生無常, 萬物流轉의 迅速함을 悽絶하게 느낀다. 또한 이 俗世는 無常迅速의 人生에 대한 反省이 엿보이며, 無常한 人生을 佛心으로 다스리고자 하는 底意까지도 類推된다고 할 수 있다.

1690年 여름의 『幻住庵記』에서도 다음과 같이 無常에 대해 吐露하고 있다.

まことに知覺迷倒みなこれ幻の一字帰にして、無常迅速のことはり、いささかもわするべきにあらず。10)

위의 俳文에서 芭蕉는 無常迅速을 拒否하는 마음이 잠깐이라도 생겨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 警戒하고 있다. 1693年 3月 도인(桃印)이 죽고, 다음 해 6月, 주테(壽貞)마저도 죽는다. 가까운 사람들의 잇따른 죽음으로 인해 諸行無常, 生者必滅이라는 無常感을 切感하게 된다.

『猿蓑』에서도 芭蕉는 無常에 대해 다음과 같이 吐露하고 있다.

無常迅速

やがて死ぬけしきは見えず蟬の聲¹¹⁾

위의 『猿蓑』에서 芭蕉는 「無常迅速」이라는 序言을 提示하고, 가을이 되면 消滅하고 마는 「매미」라는 生物을 통해 有限한 媒體에 대한 無常感을 吐露하고 있다. 그러나 自身の 有限性도 모르고 열심히 울고 있는 매미소리에서 처절한 無常感이 흐르고 있다. 매미를 통해 우리 人間 또한 有限한 存在라는 事實을 確認시켜주면서 無知를 警戒하고 있다. 芭蕉가 觀照한 人生, 歲月, 事物 등, 모두 無常迅速 幻影으로 認識되고 있으며, 無常이야말로 人倫뿐만 아니라, 現世的인 我執, 俗心, 虛妄, 動搖 등을 超越한 世界에서 藝術의 美와 事物의 眞理를 同時に 찾으려고 하였던 것이다.

以上과 같이 芭蕉는 主君 良忠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無常感을 느끼고, 새로운 삶을 찾아 江戸로 進出하면서 俳諧師로서 立地를 構築하게 되지만, 社會적으로 保障된 富와 名聲을 拋棄하고 草庵으로 隱居를 택한다. 그런데 居住하고 있던 草庵이 火災事件으로 불타 無所住의 狀態가 된다. 그리고 비슷한 時期에 故郷에서는 어머니가 臨終한다. 하지만 어려운 形便 때문

10) 上掲書, p.298

11) 前掲書, 『松尾芭蕉1』, p.344

에 어머니의 葬禮式에도 參席할 수 없는 狀況에 놓이면서 無常에 대해 切感한다. 以後 芭蕉는 漂泊을 통해, 一所不住의 生活을 實踐하고, 그의 文藝 또한 現世的인 流轉變化와 無所住의 無常에 대해 吐露한다.

3. 芭蕉의 無常

3.1 造化隨順과 無常

芭蕉는 自然을 固定된 事物로 보지 않는다. 自然은 항상 움직이는 것이고, 그 움직임에는 一定한 規則이 存在한다고 보고 있다. 芭蕉는 이러한 規則에 대해 『笈の小文』<序文>을 통해 다음과 같이 吐露하고 있다.

造化にしたがひて四時を友とす。見るところ花にあらずといふことなし。思ふところ月にあらずといふことなし。像、花にあらざる時は夷狄にひとし。心、花にあらざる時は鳥獸に類す。夷狄を出で、鳥獸を離れて、造化にしたがひ、造化にかへれとなり。¹²⁾

위의 俳文에서 <造化>란 모든 萬物이 秩序整然하게 運行한다는 意味이다. 事物은 個體이면서, 運行의 一環으로, 全體 속에서 相互作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萬物은 全體와 關聯되어 있는 個體가 되는 것이다. 나무는 나무로서 個體이지만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茂盛함을 자랑하고, 가을에는 落葉이 물들고, 겨울에는 다시 양상한 가지만 남는 變化를 한다. 하지만 이것은 自然의 造化이며, 陰陽의 攝理에 의한 것이다. 즉, 造化隨順의 境地에서 事物의 아름다움이 存在하며, 이런 自然觀이 古人들이 貫流했던 藝道情神인 것이다.

「造化にしたがひて四時を友とす。」에서 <造化>라는 單語 自體는 막연해서 把握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다음의 四季의 現象을 「友とす。」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造化를 이루어야할 對象이 具體적이고 個別的인 것이다. 따라서 「造化にしたがひ、造化にかへれとなり。」라고 段落을 지은 것이다.

結局 天地의 뜻을 自己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自身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個體인 自身 안에 철저하게 틀어박히는 일로서 全宇宙로 連結된다는 認識은 그대로

12) 前掲書, 『松尾芭蕉2』, pp.45-46

自然의 認識인 것이다. 또한 自然은 스스로 原理를 갖고 自得한다고 吐露한 芭蕉는 自然觀에 대해 『三冊子(赤冊子)』를 통해 다음과 같이 定義하고 있다.

松の事は松に習へ、竹の事は竹に習へと師の詞のありしも、私意をはなれよといふ事也¹³⁾

위의 引用文에서 芭蕉는 自然 考察의 重要한 視覺에 대해 <소나무에 관하여는 소나무에게 배우고, 대나무에 관하여는 대나무에게 배우라>고 言及하고 있다. 소나무를 理解하는 데에 個體인 소나무를 볼 것이 아니라, 個體인 소나무 안에 存在하는 宇宙를 把握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나무로부터 흘러나오는 情을 把握하지 못하면 對象은 物과 自我로 分裂되어 버리기 때문에 眞正한 모습은 잡을 수 없다는 意味이다. 이는 事物의 外形性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事物이 가지고 있는 存在理致와 本相을 意味하는 것이다.

事物은 스스로 造化를 따르는 本性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本性을 理解하게 되면 詩人의 情感이 움직이고, 비로소 文藝가 誕生되는 것이다. 芭蕉가 漂泊으로 一生을 보냈던 것은 自然의 變化에 順應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芭蕉는 自然을 自身과 對立하는 客體로 생각하지 않고, 自身을 客體視함으로써 自然과의 造化를 이루려고 努力한다. 그 段階으로써 芭蕉는 自己 自身을 自然物로 여기면서 차츰 自身과 自然이 하나로 融合하는 境地를 이끌어 낸 것이다. 이로 인해 芭蕉의 俳諧는 自己 精神을 象徵化하는데 成功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芭蕉에 있어서 漂泊은 名所, 舊蹟, 歌枕 등의 探訪 目的도 있었지만, 漂泊 中에 만난 自然을 통해 自然으로 歸一하여 造化를 이루는 것이 窮極的 目的이었다고 할 수 있다.

以上과 같이 芭蕉가 觀照한 自然은 단순히 美的 概念의 外形的인 自然이 아니다. 對象化되는 物理的 空間으로서의 自然은 花鳥風月을 經驗할 수 있는 物的 存在에 不過하며, 결코 그 自體가 詩歌의 理想的인 素材나 對象이 될 수 없다. 따라서 自然은 스스로 運行秩序를 갖고 있기 때문에 造化로서의 意味가 있다는 것이다. 自然이 아름답다는 것은 奇巖怪石이나 萬頃蒼波, 落花明月이라는 現象的 事實에 理由가 있는 것이 아니고, 自然이 造化를 이루며 理法을 따라 運行하는 커다란 秩序體이기 때문이라고 規定한다.

3.2 循環과 無常

芭蕉가 觀照한 自然은 變化해서 消滅하는 것과 循環해서 永生하는 二重의 意味를 지니고

13) 前掲書, 『連歌論集俳論集』, p.398

있다. 循環하는 自然界를, 한번 죽으면 消滅하여 되돌아오지 않는 人間과 對比的으로 描寫하여 歴史와 人間の 悲哀를 보다 강하게 吐露한다. 芭蕉의 循環에 대해 服部土芳는 『三冊子(赤冊子)』에서 다음과 같이 描寫하고 있다.

師のいはく「乾坤の變は風雅のたね也」といへり。しづか成る物は不變のすがた也。動ける物は變なり。時として留めざれば、とどまらず。止むるといふは見とめ聞きとむる也。飛花落葉の散りみだるるも、その中にして見とめ、聞きとめざれば、おさまるとその活きたる物だに消えて跡なし。¹⁴⁾

위의 引用文에서 芭蕉는 「天地萬物の 變化하는 모습은 俳諧의 素材이다」라고 定義한다. 조용한 것은 不變의 모습이고, 움직이는 것은 變化의 모습이며, 움직이는 것과 멈추는 것을 糾明하는 것이 事物의 本質에 接近하는 것이라고 判斷한다. 飛花落葉하는 天地의 現象도 남기지 않으면, 그 現象이 멈추는 瞬間, 그 變化의 現象은 痕迹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乾坤の變は風雅のたね也」란 天地萬物 諸相의 變化야말로 風雅의 要素이고 文藝의 素材임을 直感한다. 天地萬物은 自得의 本相을 有持하면서 항상 千變萬化하는 途上의 存在이며, 造化의 理法에 따라 循環해 가는 것이다. 또한 飛花落葉도 時間의 흐름이나 「物」의 變化가 循環하는 過程을 거치면서 無常으로 連結된다. 芭蕉가 把握한 時間의 흐름을 통한 事物의 變化나 季節이 바뀌는 現象도 循環을 意味하는 것이다. 芭蕉는 「時の流れ」를 飛花落葉에 比喩하여, 그것을 萬物의 存在樣式으로 把握하고, 結局 이러한 循環性を 捕捉하여 描寫하는 方式을 芭蕉 俳諧의 獨創性이라고 할 수 있다. 芭蕉는 飛花落葉, 草木, 이슬 등과 같이 循環하는 것이야말로 自然의 法則이고, 事物의 本性이라고 생각하여 流轉變移하는 모습을 통해 文藝의 對象을 發見해 낸 것이다.

芭蕉의 俳諧 對象이 事物의 諸相이라고 한다면, 循環이야말로 俳諧 成立의 契機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芭蕉가 생각하는 循環이란 無常인 同時에 事物의 屬性으로서 歌人과 自然現象이 만나는 地平이 되는 것이다.

『野ざらし紀行』<當麻寺>條에서도 循環에 대한 無常을 다음과 같이 描寫하고 있다.

僧朝顔幾死に返る法の松¹⁵⁾

14) 前掲書, 『連歌論集俳論集』, pp.400-401

15) 前掲書, 『松尾芭蕉1』, p.184

위의 俳句는 芭蕉가 二上山 當麻寺를 參拜하면서 庭園에 서있는 소나무를 보니 아마 樹齡이 千年이 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庭園 구석에는 나팔꽃이 시들어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소나무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피고지기를 反復하는 나팔꽃은 循環하는 것으로 描寫하고 있다. 즉 피었다가 지는 性質과 그것을 每年 反復하는 나팔꽃, 이 절의 住持 스님은 나팔꽃처럼 더없이 죽고, 또 새로운 스님이 住持가 되고, 계속해서 人間의 죽음으로 住持가 바뀌는 現象을 比喻적으로 描寫하고 있다.

『泊船集』에도 循環에 대한 無常을 다음과 같이 描寫하고 있다.

木曾の情雪や生えぬく春の草¹⁶⁾

위의 俳句에서 芭蕉는 義仲寺 草庵의 扃속에서 嚴冬雪寒에 견디면서 봄풀이 싹을 내고 있는 것을 發見한다. 山이 높고 溪谷이 깊은 木曾 땅에서도 눈 아래에는 풀들이 싹을 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疾風怒濤처럼 살다간 기소 요시나카(木曾義仲)의 情念을 알고 있기 때문인지 木曾 땅이 기름지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木曾라는 추운 地方의 눈을 녹이고, 봄이 되면 싹이 돌아나는 것이다. 芭蕉 自身도 1688年 가을 木曾路를 찾아가 深山幽谷의 風趣를 實感하여 義仲의 墓인 木曾塚 周邊에 庵子를 만들었고, 死後에는 木曾塚 옆에 묻힌다. 人間 生命의 덧없음과 正反對로 草木은 永遠한 生命力을 가진 循環하는 存在로 描寫되어 있다.

『蕉翁句集草稿』에도 循環에 대한 無常을 다음과 같이 吐露하고 있다.

當販よりあはれは塚の萱草¹⁷⁾

위의 俳句는 1696年 2月 2日, 呂丸(呂丸)이 旅行 中 京都에서 客死하였다는 消息을 접하고 읊은 追悼句이다.

呂丸은 山形 出羽 出身으로 芭蕉가 『奥の細道』漂泊 中에 羽黒山을 訪問하였을 때, 案内를 擔當하면서 芭蕉로부터 最初로 「不易流行」이란 文藝論에 관해 듣게 되는 등 莫逆한 사이이다. 지금 그의 故郷 出羽에서는 “반드시 돌아간다”는 意味가 있는 <當歸>라는 꽃이 피어있을 것이다. 客地에서 죽음을 맞이한 呂丸은 죽어서도 故郷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겠지만, 그의 무덤 주위에는 <當歸>가 아닌 제비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을 것이다. 그것이 <當歸>보다도 훨씬 애처롭고, 또한 呂丸에게 어울릴 것이라고 想像하면서 읊은 것이다. 芭蕉는 呂丸의 죽음

16) 上掲書, p.368

17) 前掲書, 『松尾芭蕉1』, p.427

을 循環하며 無限의 生命을 가진 제비꽃과 對比하여 無常感を 描寫하고 있다.

1694年の『笈日記』에도 循環에 대한 無常을 다음과 같이 吐露하고 있다.

梅が香に昔の一字あはれなり

一歳の夢のごとくにして猶佛立さらぬ嘆のほど、おもひやる斗二候。二月十三日、梅丸老人¹⁸⁾

위의 俳句는 우메마루(梅丸)의 아들 신야(新八)의 一周忌 追悼句이다. 봄이 되어 梅花가 향기롭게 피어 있는 것을 보니 歲月이 流水같이 흘러 벌써 1년이 지나간 것이다. 昨年까지만해도 健在하던 신야는 죽고 있는데 죽은 신야의 모습이 자꾸 눈이 떠올라 「昔」이라는 한 글자가 애처로운 글자가 되어 한층 더 마음을 아프게 한다. 신야는 이미 1年前에 죽고 없지만, 매화꽃은 올해도 피어 健在함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통해 有限한 人間の 生命과 循環性을 가진 매화꽃의 無限한 生命力과 對比하여 無常함을 吐露하고 있다.

『奥の細道』<壺の碑>條에서도 循環에 대한 無常을 다음과 같이 描寫하고 있다.

むかしよりよみ置ける歌枕、おほく語り伝ふといへども、山崩れ、川流れて、道あらたまり、石は埋れて土にかくれ、木は老いて若木にかへれば、時移り代変じて、その跡たしかならぬ事のみを、ここに至りて疑ひなき千歳の記念、今眼前に古人の心を閲す。行脚の一徳、存命の悦び、羈旅の勞をわすれて、涙も落つるばかりなり。¹⁹⁾

위의 俳文에서 芭蕉는 오래전에 詩歌에 登場한 名所는 많지만, 歲月이 흐르면서 山은 무너지고, 江은 流失되고, 길이 변하여 돌은 땅속에 묻히고, 樹木은 늙어 어린 나무로 交替되었으며, 時間이 흘러 代가 바뀌면서 名所の 痕迹이 모호한데, 이곳에서 옛 碑石을 보니 千年 香氣가 나는 記念物이며, 눈앞에 古人의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다고 吐露한다. 循環하는 自然 속에서 많은 것이 사라지고 없지만, 그래도 古人이 남긴 遺蹟을 發見하는 것은 漂泊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고 描寫하고 있다.

芭蕉는 俳諧理論이라는 文藝的 立場에서 一貫된 循環의 이미지를 所有하고 있다. 有限한 人生의 「時間」은 無常한 것이지만, 俳諧 世界에서는 無常의 心情性을 除去한 抽象的 思想으로 보고 있다.

18) 上掲書, p.458

19) 前掲書, 『松尾芭蕉2』, pp.92-93

以上과 같이 芭蕉는 소나무(松)·매화(梅)·제비꽃(堇)·풀(草) 등 循環을 통해 永遠한 生命을 가진 것으로 判斷하고, 덧없는 人間의 生命과 對比的으로 描寫하여 無常에 대해 吐露하고 있다. 또한 季節의 變化는 歲月의 흐름을 알 수 있고, 飛花落葉은 無常을 느끼게 하고, 自然의 理致가 平等하고 無差別하여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法則을 暗示하므로 詩人은 이것을 吐露하는 것이다. 芭蕉는 循環하는 自然의 여러 모습, 즉 山과 江은 永遠하지만, 길이나 돌, 樹木은 時間의 흐름에 따라 變化하고, 옛날부터 전해져오는 有名한 歌枕도 變化하는 모습을 통해 循環하는 自然에 대한 無常을 吐露하고 있다.

3.3 人間營爲와 無常

佛敎的 無常觀이 現象의 모든 것을 描寫하는 데에 비해, 芭蕉의 無常觀은 그러한 一面을 認定하면서도 집 같은 人爲的인 것도 人間營爲의 無常으로 認定하고 있다. 『奥の細道』<序>에 人間營爲의 無常함을 다음과 같이 描寫하고 있다.

草の戸も住み替る代ぞ難の家²⁰⁾

위의 俳句에서 芭蕉는 自身을 궁상맞은 늙은이로 描寫하면서 自身이 居住하던 초라한 草庵도 主人이 바뀌어 젊은 夫婦가 들어와 살게 된 것을 기뻐한다. 마침 陰曆 3月 3日 히나 祝祭 시즌이어서, 새로운 主人은 自身の 딸을 위해 히나 人形을 裝飾하여 집안이 활기차 보인다고 吐露하고 있다. 表面上으로는 <늙은이가 사는 궁상맞은 오두막집>이 <귀여운 여자아이가 人形을 裝飾하며 뛰노는 生氣 있는 집>으로 바뀌는데 대한 祝福의 마음을 描寫하고 있으나, 그 裏面에는 人間營爲의 無常함이 複雜微妙한 感情으로 表出되고 있다.

芭蕉는 <太古>로부터 <現在>로 흘러온 時間을 觀照하면서, <現在>라는 一瞬間 속에서 <永遠의 時間>을 觀照하고 있는 것이다. 집은 人間이 세운 人爲的인 것으로 언젠가는 破壞되는데 반해 自然은 永遠하다. 집은 窮極적으로 無常을 피할 수는 없지만, 瞬間적으로 消滅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數十年, 어떤 境遇는 數百年 風雪을 견디면서 지탱할 수 있다.

『奥の細道』<平泉>條에는 人間營爲에 대한 無常을 다음과 같이 描寫하고 있다.

三代の榮濯一睡の中にして、大門の跡は一里こなたにあり。秀衡が跡は田野に成りて、金鷄山のみ形を残す。先づ高館にのぼれば、北上川南部より流るる大河なり。衣川は和泉が

20) 前掲書, 『松尾芭蕉2』, p.76

城をめぐりて、高館の下にて大河に落ち入る。泰衡等が旧跡は、衣が関を隔てて、南部口をさし堅め、夷をふせぐと見えたり。さても義臣すぐつてこの城にこもり、功名一時の叢となる。「国破れて山河あり、城春にして草青みたり。」と笠うち敷きて、時のうつるまで涙を落し侍りぬ。

夏草や兵どもが夢の跡²¹⁾

위의 俳句에서 芭蕉는 「三代の榮耀」, 즉 기요히라(清衡), 모토히라(基衡), 히데히라(秀衡)의 三代에 걸친 繁盛을 회상하면서 人間營爲의 無常함을 吐露하고 있다. 지금은 廢墟가 된 城門은 十里 밖에 있다. 후지와라 政權이 滅亡한지 500년이 지난 1689年 6月 28日 芭蕉는 弟子 소라와 함께 히라이즈미(平泉)로 가지만, 히데히라 官邸의 大門이 있던 遺蹟은 논밭으로 변해 있고, 긴케이 산(金鷄山)만이 옛 모습을 維持하고 있다. 또한 미나모토 요시쓰네(源義経)가 使用하던 다카다치(高館)에 올라보니 當時의 建築物은 痕迹 없이 사라지고, 기타가미 강(北上川)이 큰 물줄기를 이루며 남쪽으로 끝없이 흘러가는 것이 보이고, 고로모 강(衣川)이 이즈미 성(和泉が城)을 에워싸듯 흘러 다카다치 아래쪽에서 기타가미 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이 보인다. 하지만 歴史的으로 그렇게 영화로웠던 當時 人間營爲의 造型物은 찾아볼 수 없다. 平泉의 燦爛했던 100年 歴史는 한바탕 꿈이었던 말인가 하고 芭蕉는 歎息한다. 다카다치는 요시쓰네(義経)와 그의 義臣들이 아스히라 軍의 奇襲을 받아 全滅한 곳이다. 當時 義経 夫妻는 自決하고, 老臣 가네후사(兼房)는 主君의 죽음을 지켜본 후 다카다치에 불을 지르고 끝까지 奮戰하다 壯烈한 最後를 맞이한다. 當時 激烈한 전쟁터였던 다카다치는 지금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성터에는 雜草만 茂盛하다. 이것을 目撃한 芭蕉는 삿갓을 깔고 앉아 「春望」이라는 杜詩 中에 <國破山河在 城春草木深>이라는 句를 떠올리고, 人間營爲의 無常함을 생각하면서 <夏草や兵どもが夢の跡>라고 俳句 한 수를 읊는다. 人間營爲의 建築物들은 痕迹 없이 사라지고 없지만, 自然은 변함없이 自身의 모습을 維持하고 있다.

『奥の細道』<小松>條에서도 사이토 사네모리(齊藤實盛)의 遺品을 보고, 老武士를 애달파하면서 人間營爲에 대한 無常을 다음과 같이 描寫하고 있다.

むざんやな甲の下のきりぎりす²²⁾

위의 俳句는 芭蕉가 小松에 到着하여 太田神社에 參拜해서 읊은 句이다. 사네모리는 越前

21) 上掲書, pp.99-100

22) 前掲書, 『松尾芭蕉2』, p.115

(福井縣) 出身으로 처음에는 源義朝의 武將이었는데, 主君이 죽자 對立關係에 있던 다이라노 무네모리(平宗盛) 쪽으로 轉向해 간다. 1183년에 다이라 軍이 越前을 征伐하려 할 때, 自身の故郷이므로 그곳 地理에 밝아 先鋒을 맡게 된다. 出兵에 앞서 죽음을 豫感해서인지 다이라노 무네모리에게 懇請하여 붉은 옷을 下賜받아 갑옷 밑에 받쳐 입고, 73歲의 老人이라는 事實을 숨기기 위해 白髮을 染色하고 出戰한다. 전장에서 對峙한 敵의 總大將인 요시나카(義仲)는, 孤兒 出身으로 사네모리가 거두어 키워준 因緣이 있었다. 요시나카는 義父인 사네모리를 죽이지 않으려고 많은 配慮를 하지만, 結局 사네모리는 요시나카의 部下에게 죽음을 당하고 만다. 요시나카는 義父의 首級이 白髮이 아니라 黑髮인 것을 이상히 여겨 首級을 씻어보고 白髮임을 確認한 후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요시나카는 發願文을 지어 義父의 遺品과 함께 太田神社로 보내어 冥福을 빈다. 芭蕉는 이런 歴史的인 悲話가 있는 太田神社를 參拜하면서, 壯烈하게 살다가 悽慘하게 죽는 것이 武夫의 運命, 앞에 놓인 투구 主人이 겪었을 波瀾萬丈한 生涯를 생각하며 깊은 想念에 잠겨 있는데, 투구 밑에서 무심한 귀뚜라미 한 마리가 태평스럽게 울고 있는 것을 보고 늙은 武士의 慘酷한 最後가 생각나 人間營爲의 無常함을 哀絶하게 읊은 것이다.

『野ざらし紀行』<富士川>條에서도 人間營爲에 대한 無常을 다음과 같이 描寫하고 있다.

富士川の辺を行くに、三つばかりなる捨子の哀れげに泣く有り。この川の早瀬にかけて、浮世の波をしのぐにたへず、露ばかりの命待つ間と捨て置きけむ。小萩がもとの秋の風、今宵や散るらん、明日や萎れんと、袂より食物投げて通るに、猿を聞く人捨子に秋の風いかに
いかにぞや汝。父に悪まれたるか、母に疎まれたるか。父は汝を惡むにあらじ、母は汝を疎むにあらじ。ただこれ天にして、汝が性の拙きを泣け。²³⁾

위의 俳文은 芭蕉가 『野ざらし紀行』 途中 富士川 近處를 지날 무렵, 3살 정도의 「버려진 아이(捨子)」가 너무나 불쌍하게 울고 있다. 아무리 아이를 기를 수도 없는 어려운 形便이라고 하여도, 急流로 名聲이 높은 이런 곳에 아이를 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世上을 살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침이슬과 마찬가지로 해가 뜨면 사라질지 모르는 부질없는 生命이라는 事實을 알면서도 강가에 버린 것이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어오는데 恨 많은 生命은 하룻밤을 넘길 수 있을지 혹은 다음날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애달프게 울고 있는 「捨子」의 哀切한 모습을 보면서 주머니에서 먹을 것을 꺼내어 던져 주고 지나가면

23) 前掲書, 『松尾芭蕉2』, p.22

서 <猿を聞く人捨子に秋の風いかに>라고 自身の 悲痛한 心境을 원숭이 울음소리에 比喻하여 吐露하고 있다.

아버지에게 미움을 받아 이렇게 된 것도, 어머니에게 따돌림을 당해 이렇게 된 것도 아닐 것이다. 아버지가 子息을 미워할 리 없고, 어머니가 子息을 따돌릴 理由도 없다. 이 모든 것이 타고난 運命이므로, 너의 不運을 탓할 수밖에 없다고 恨歎한다. 이 句에 대해 芭蕉의 人間愛를 批判하는 境遇도 있다. 그러나 芭蕉는 「捨子」에 대해 깊은 憐憫의 情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當時 日本 社會는 「間引き」가 制度化되어 있었고, 個人의 限定된 能力으로는 制度를 어떻게 할 수 없는 時代였던 것이다. 그런 時代 狀況 속에서 芭蕉는 人間營爲의 無常에 壓倒되어 恨歎하고 있다. 當時 芭蕉는 버려진 아이에게 약간의 음식을 줄 수 있을 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自身の 無力함, 人間營爲의 無常함을 생각하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笈の小文』<序文>에서도 人間營爲에 대한 無常을 다음과 같이 描寫하고 있다.

百骸九竅の中に物あり、かりに名付けて風羅坊といふ。誠にうすものの風にやぶれやすからんことを言ふにやあらむ。かれ狂句を好むこと久し。つひに生涯のはかりごととなす。ある時は倦んで放擲せんことを思ひ、ある時は進むで人に勝たむことを誇り、是非胸中に戦うて、これが爲に身安からず。しばらく身を立てむことを願へども、これが爲にさへられ、しばらく學んで愚をさとらんことを思へども、これが爲に破られ、つひに無能無芸にして、ただこの一筋につながる。24)

위의 俳文에서 芭蕉는 自身の 몸속에 백 개의 뼈와 아홉 개의 구멍을 지닌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을 「후라보(風羅坊)」라고 描寫하고 있다. 「후라(風羅)」란 얇고, 부서지기 쉽고, 定處 없는 人間營爲의 無常을 意味하는 것이다. 自身은 俳諧를 한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어떤 때는 싫증이 나서 抛棄해버릴까 생각하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열심히 努力하여 다른 사람에게 自身을 자랑하려 하기도 했지만, 人間營爲의 無常함을 理解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슴앓이만 하다가 心身이 편하지 못했다고 回想하고 있다. 또한 한 때는 남들처럼 官職에 進出하여 出世하기 위해 努力한 적도 있으나 俳諧에 魅了되어 抛棄하게 되었고, 以後 佛教를 배워 스스로 어리석음을 깨우치려 한 적도 있지만, 그 역시 俳諧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끝내는 無能無藝인 채로 俳諧 하나에 邁進하게 되었다고 吐露하고 있다. 芭蕉는 俳諧 등 人間營爲의 文藝 活動마저 無常한 存在로 認識하고 있었던 것이다.

24) 前掲書, 『松尾芭蕉2』, p.45

『奥の細道』<末松山>條에서도 人間營爲에 대한 無常을 다음과 같이 描寫하고 있다.

松のあひひ皆墓原にて、はねをかはし枝をつらぬる契りの末も、終にはかくのごときと
悲しさも増りて、塩釜の浦に入相の鐘を聞く。²⁵⁾

위의 俳文에서 알 수 있듯이 芭蕉는 末松山 절 뒤편 소나무 사이사이에 있는 雙墳을 보고 夫婦 間의 사랑까지도 人間營爲의 無常으로 規定하게 된다. 「比翼」이란 새는 암수가 각각 날개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 한 쌍이 하나가 되어야 날 수 있다는 傳說的인 새이고, 「連理」는 두 나무가 서로 가까이 있으면 가지가 서로 연이어지고 나뭇결까지 같아진다는 比翼連理이란 故事成語를 引用하여 夫婦 間에 영원히 변하지 말자던 사랑의 盟誓도 終局에는 한줌의 흙무덤으로 변하고 만다고 생각하면서 無常함을 느끼고, 鬱寂한 氣分으로 黃昏 속의 시오가마 浦口로 내려오는데 어느 먼 山寺에서 은은히 저녁 종소리가 들려온다. 이때 芭蕉가 느낀 感情은 生者必滅, 會者定離, 諸行無常이었을 것이다. 男女 間의 사랑 盟誓도 結局 人間營爲의 無常인 것이다.

以上과 같이 芭蕉는 집이나 城, 투구, 捨子, 身體, 文藝, 男女 間의 사랑 등을 통해서 人間營爲의 無常을 느끼고 있다. 집이나 城 등 人間營爲의 事物은 一時的인 存在로 언젠가는 消滅하게 되는데 반해 自然은 永遠히 存在하는 것이다. 人間營爲의 事物이 窮極的으로는 無常을 피할 수는 없지만, 一定 期間 消滅하지 않고, 어떤 境遇에는 數百年 風雪을 견디면서 모습을 維持하기도 하지만, 結局 大自然 속에 同化되는 것으로 永遠한 存在는 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吐露하고 있다.

4. 나오며

世上에 存在하는 모든 事物은 태어나고 변하고 消滅하는 過程이 있고, 不變常住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 無常觀이다. 芭蕉는 이 無常에 대해 「飛花落葉」 혹은 「造化隨順」으로 把握하여, 이世上에 存在하는 森羅萬象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流轉하므로 人間은 自然의 理致에 따라 自然에 順應하는 것이 가장 理想的인 삶이라고 把握했던 것이다.

芭蕉의 無常觀 形成 過程에서는 主君 良忠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人生에 대한 無常함을

25) 前掲書, 『松尾芭蕉2』, pp.93-94

느끼고, 새로운 삶을 찾아 江戸로 進出하면서 俳諧師로서의 立地를 構築하게 되지만, 社會적으로 保障된 富와 名聲을 拋棄하고 草庵으로 들어가 隱居한다. 그런데 隱居하고 있던 草庵이 火災事件으로 불타 無所住의 狀態가 된다. 그리고 비슷한 時期에 故鄉에서는 어머니가 作故한다. 하지만 어려운 形便 때문에 어머니의 葬禮式에도 參席할 수 없는 狀況에 놓이면서 無常에 대해 切感한다. 以後 芭蕉는 漂泊을 통해, 一所不住의 生活을 實踐하고, 그의 文藝 또한 現世的인 流轉變化와 無所住의 無常에 대해 吐露한다.

이러한 芭蕉의 無常은 「造化隨順」, 「循環」, 「人間營爲」로 大別할 수 있는데, 「造化隨順」에서는 漂泊으로 觀照한 自然에 대해 스스로 運行秩序를 갖고 있기 때문에 詩歌의 對象이 될 수 있으며 거기에 造化로서의 意味가 있다고 規定한다. 「循環」에서는 소나무·매화·제비꽃·풀 등 循環하는 自然을 永遠한 生命을 가진 것으로 把握하여, 人間의 덧없는 生命과 對比적으로 描寫하여 無常을 吐露한다. 또한 山과 江은 永遠하지만, 길이나 돌, 樹木은 時間의 흐름에 따라 변하고, 옛날부터 전해져오는 有名한 歌枕도 變化하는 모습을 통해 循環하는 自然에 대한 無常을 吐露하고 있다. 「人間營爲」에서는 집이나 城, 투구, 捨子, 身體, 文藝, 男女間의 사랑 등을 통해 無常에 대해 吐露하고 있다. 人間營爲의 집이나 城 등은 언젠가는 消滅되는데 반해 自然은 영원히 存在한다. 즉 自然은 永遠한 存在, 歲月은 流轉하는 것, 人間은 有限한 것, 人間營爲는 一時的으로 存在하는 것이라고 吐露하고 있다.

이와 같이 芭蕉는 無常을 感傷的 態度로써 恨歎하거나, 意志的, 主觀적으로 意味 變更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自然의 理法을 깨닫고, 現世的인 我執, 俗心, 虛妄, 動搖를 超越한 세계에서 藝術의 美와 사물의 眞理를 同時に 追求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參考文獻】

- 梁順喜(1985.8) 「松尾芭蕉의 無常觀研究」中央大學校 教育大學院
 赤羽學(1997) 『発句で読む芭蕉の生と死』翰林書房
 秋月龍珉(1987) 『禪と日本文化』平河出版社
 井本農一・堀切實(1999) 『松尾芭蕉1』小學館
 井本農一・久富哲雄・村松友次・堀切實(1999) 『松尾芭蕉2』小學館
 勝山晋風(1921) 『其角全集』聚英閣
 木藤才藏・井本農一 校注(1983) 『連歌論集 俳論集』岩波書店
 小林秀雄(1983) 『無常という事』角川書店
 佐藤圓(1970) 『芭蕉と佛教』櫻楓社
 高瀬重雄(1942) 『日本人の自然觀』河原書店
 萩原羅月(1942) 『芭蕉の精神』弘學社
 本田義憲(1980) 『日本人の無常觀』日本放送出版協會
 柳田聖山(1997) 『禪と文學』ぺりかん社

논문투고일	: 2012년 03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2년 03월 20일
1차 수정일	: 2012년 04월 10일
2차 수정일	: 2012년 04월 16일
게재확정일	: 2012년 04월 20일

 <要旨>

芭蕉의 無常觀 研究

이 世上에 存在하는 森羅萬象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流轉하므로 自然은 永遠한 存在, 歲月은 흘러가는 것, 人間은 덧없는 것, 人間營爲는 一時的인 存在로 把握한 것이 芭蕉의 無常觀이다.

芭蕉는 漂泊을 통해 觀照한 自然에 대해 스스로 運行秩序를 갖고 있기 때문에 詩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거기에 造化로서의 意味가 있다고 規定한다. 또한 소나무-매화-제비꽃-풀 등 循環하는 自然을 永遠한 生命을 가진 것으로 把握하여, 人間의 덧없는 生命과 對比적으로 描寫하여 無常에 대해 吐露한다. 그리고 自然은 永遠한 存在, 人間은 有限한 것, 人間營爲는 一時的인 存在로 把握한다.

이와 같이 芭蕉는 無常을 感傷의 態度로써 恨歎하거나, 意志的, 主觀적으로 意味 變更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自然의 理法을 깨닫고, 現世的인 我執, 俗心, 虛妄, 動搖를 超越한 세계에서 藝術의 美와 사물의 眞理를 同時에 追求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A Study on Basho's View of Life as Something Transient and Empty

Basho's view of life as something transient and empty was described as everything in the universe changes, and artificial as temporary phenomenon. On the other hand, nature was described as a sort of infinite lives.

This study was understood Basho's view of life as something transient and empty as not so much lamenting in sentimental attitude, or changing meaning in subjective as realizing the law of nature. In addition, something transient and empty can be seen by simultaneously pursuing the beauty of art and the truth of things beyond the realistic egoism, a worldly mind, untruth and the shaking.